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3 ~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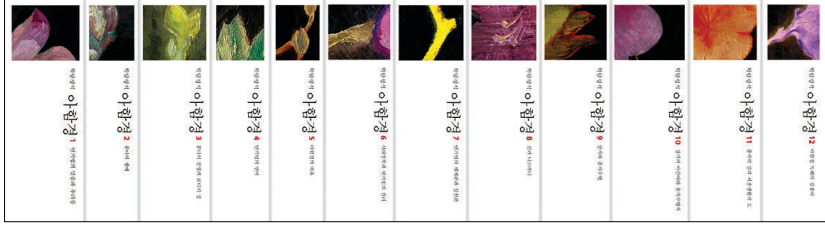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법륜, 송현문	마하연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7	현판기행	김봉규	담앤북스
3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출판부	8	사람이 온다(하해와 치유의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4	맑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두 글자로 깨치는 불교	가섭	불광출판사
5	수트라 (여시아독)	법일	김영사	10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	운주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학담평석 아함경 - 전 12책(20권)

학담 지음 | 한길사 펴냄 | 전권 44만원



4아함 완전 해체, 새 틀의 <아함경>

새로운 형식의 <아함경>이다. '분류'도 '제목'도 '해석'도 책의 분량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함경>이다. 기원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에 산스크리트 전승의 4아함이 중국에서 한역되었고, 팔리어 전승의 니까야 5부는 남방 상좌 부라는 단일 부파에서 전승해온 것이 온전히 보존되었다.

은 암송에 의한 구전이다. 암송해서 구전되던 것을 서사하여 전하면서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아함'이나 '니까야'의 완성 과정은 암송의 결집인 것이다. 암송의 '순서'에 의해 쌓인 텍스트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저자인 학담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묶었다. 기존의 제목들을 버리고 유사한 내용을 끼리 묶어 그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붙였다.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해 좀 더 큰 전법의 결실을 보고자 함이다.

책은 기존의 4아함(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과 5니까야(장부, 중부, 상부, 중지부, 소부)불전 전체를 해체하여 귀명장·불보장·법보장·승보장으로 나누어 전 12책 20권의 새로운 틀로 가려 엮은 <아함경> 평석이다.

“모든 대승불전의 문자반야는 아가마(아함)에서 여래가 맨 처음 열어 보인 교설의 확대부연이므로 대승은 아함으로 읽고, 아함은 대승에서 다시 풀이한 뜻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입장이 나의 확신이고 본서 편집의 기본 관점이다. 비록 방대한 양의 경전을 번역하고 풀이했지만 문자로 된 경전풀이에 그 누구라도 한계를 안지 않을 수 없다. 언어적으로 팔리어 니까야가 인도어의 남방 전승언어로 원전이

<표> '학담평석 아함경'의 구성

아함경	책제	권제
제1권	연기법의 믿음과 우려를	귀명장 1 삼보의 역사적 출현과 해탈의 길 귀명장 2 우려를 깨달음
제2권	분다의 생애	불보장 1 분다, 그 거룩한 삶 위대한 길
제3권	분다의 진실과 보디의 길	불보장 2 분다의 참모습과 보디의 행 불보장 3 분다에 대한 찬송과 불다됨의 길
제4권	연기법의 언어	법보장 1 연기법의 언어 연기법의 가르침
제5권	아함경의 비유	법보장 2 진실의 비유와 비유의 진실
제6권	시대철학과 연기법의 진리	법보장 3 시대철학, 그 연기론적 비판과 포용 법보장 4 연기법의 진리
제7권	연기법의 세계관과 실천관	법보장 5 연기법에서 존재·인식·실천 법보장 6 세 가지 배움과 해탈의 실천
제8권	선과 니르바나	법보장 7 선(禪),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하나됨 법보장 8 존재의 실상, 해탈의 현실인 니르바나
제9권	상가와 출가수행	승보장 1 진리의 공동체, 상가의 성격과 구성 승보장 2 출가교단과 출가수행자의 생활
제10권	상가의 아란야와 출가수행자	승보장 3 나아감과 돌아옴의 곳, 상가의 아란야 승보장 4 상가공동체의 거룩한 수행자들
제11권	출가의 길과 세간생활의 도	승보장 5 속박의 집을 나와 해탈의 길로 승보장 6 해탈의 길, 정도의 세상
제12권	아함경 독해의 길잡이	길잡이

기존 '장아함' 등의 분류에서

귀명·불보·법보·승보장으로 분류

전 12책 20권의 새로운 체계

원고 4만 매 집필 4년 편집 2년

가르침 '내용' 별로 분류하고 묶어

“모든 대승불전의 문자반야는

아가마(아함)의 확대부연”

우리 시대의 언어로 쓰인 '아함'

통합적 해석 불법 새롭게 조명



라 할 수 있지만, 인도고전에 대한 언어 해독의 능력만으로 경전 문자가 보이는 반야의 지취(旨趣)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언어로 된 경전 풀이의 한계와 빠뜨림에 대해 '아가마' 원전은 모든 법의 실상(諸法實相)이며, 법계의 경을 읽고 법계의 경을 설하는 것이 <아함경>을 읽는 것이다'라는 한 마디로 우리들의 그 모든 허물을 녹여내고자 한다.”

이번 <아함경>은 기존의 것에서 볼 수 없었던 '수치'와 '형식' 말고도 많은 성과를 담고 있는 출간이다. 철학과 사학과 문학을 관통하는 우리 시대의 언어로 쓰인 '아함'이며, 모든 경을 대승 교설과 회통하여 깊고 명쾌하게 평석함으로써 불교철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아함경>의 주요 술어에 대해 남·북전 원어와 비교·검토·보완하여, 난해하고 복잡한 경을 이 시대의 생동하는 해탈의 언어로 풀어냈다. 용어와 개념을 한글화하여 불교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선(禪)과 교(敎)에 대한 이원적 이해를 넘어서는 통합적 해석으로 부처님

의 가르침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번 <아함경> 간행은 부처님 육성의 설법을 시대의 언어로 되살려낸 것이며, 이 시대 대중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시대의 여러 고난을 해결할 지혜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상과 정신의 자량(資糧)이 되기를 바라는 불사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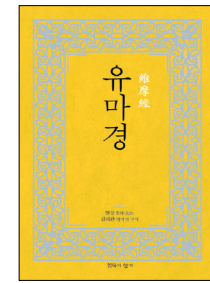
학담 스님은

1970년 경주 불항사 도문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용성선사의 근본 도량인 대각사에서 출가 초기를 보내며, 용성선사의 1세대 제자들인 동현선사와 동광선사로부터 선(禪)을 훈도 받았다. 상원사·망월사·해인사·봉암사·백련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20대에 이미 3년여 장좌불와와 수행을 감당했다. 20대 말 아함의 한 구절에서 중도의 지견을 밝혔다. 용성선사 유업 계승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에 대승사를 열고 역경불사를 진행하여 <사십이장경강의> <돈오입도요론> <원각경관심석> <육조법보단경> <법화삼매의 길> 등 많은 불전 해석서를 발간했다.

'불이증도'는 이 세계 자체의 본질

유마경

현장 한역 | 김태완 번역 및 주석
침묵의향기 펴냄 | 2만원



<유마경>은 불이법(不二法)을 탁월하게 설하는 불가사의해탈법문(不可思議解脫法門)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이 엄밀하면서도 쉬운 말로 번역하고 풍부한 주석을 붙인 <유마경>이다.

<유마경>의 정확한 명칭은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며 줄여서 <유마힐경> <유마경>이라 한다. 유마힐은 경전의 주인공인 거사로서 리차비족의 수도인 베살리에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부호라고 하나 실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경은 3회 14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마 거사가 병으로 앓아눕자 부처는 지혜 제 일인 사리불을 비롯하여 가섭·수보리 등을 병문안 가게 권하나 그들 모두 유마 거사의 높은 법력이 두려워 문병가기를 꺼린다. 결국 문수보살이 가게 되는데 유마 거사와의 대화에서 문수보살은 대승의 깊은 교리인 불이(不二)법문을 유마거사의

침묵을 통해 깨우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경에 대한 한역은 7가지가 있었다고 하나, 현존하는 것은 3가지로 지경(支謙) 역의 <유마힐경> 2권, 구마라습 역의 <유마힐소설경> 3권, 현장 역의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 6권이 있다. 책은 당나라 현장이 한역(漢譯)한 <설무구칭경>을 원전으로 했다. 현장의 번역본은 티베트어 본과 내용이 가장 유사하며 산스크리트어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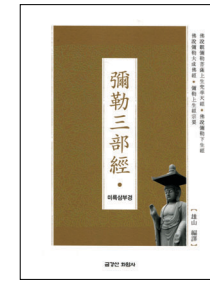
<유마경>은 철저히 불이법문이다. 불이증도를 통한 해탈의 길을 탁월한 통찰력과 논변으로 설하며, 불이증도란 무엇인지를 다양한 상황에 대입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하여 결국 불이증도란 이 세계 자체의 본질임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불법(佛法)은 불이법(不二法)이다. <유마경>이 예로부터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경전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불이법을 탁월하게 설하는 불가사의해탈법문(不可思議解脫法門)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에서도 선종을 비롯한 각 종파에서 중심 경전으로 삼아 열독했으며, 수많은 해설서들이 집필되었고, 육조단경과 증도가 등 선종의 주요 문헌들에서도 다수 인용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먼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리 만나다

미륵삼부경

웅산 편역 | 인북스 펴냄 | 1만원



책은 금강산 화암사가 미륵부처님을 모시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출간한 것으로,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 편역의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이다.

미륵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보살 가운데 한 미래의 부처님이며, <미륵삼부경>은 미륵보살에 대한 교설을 담은 세 부의 경전을 말한다. 미륵보살의 상생·하생·성

불과 관련된 교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섯 부의 경전을 <미륵육부경>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다시 세 부의 경전을 묶어서 <미륵삼부경>이라고 한다.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을 말한다.

책은 위 세 부의 <미륵삼부경>과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로 엮었다. 원문은 <대정신수대장경>의 원전을 바탕으로 했다. <미륵삼부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을 실었다. 번역은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단락을 나누고 표제어를 제시하여 편집했다. 주(註)는 <불광대사전>과 <시공불교사전> <불교대사전>에 의거하여 풀었다. 먼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책으로 먼저 만나본다. **박재완 기자**

사랑이 온다

Here comes love
이영철 화가의 힐링편지

이영철 화가의 힐링북

“사랑이 온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요하고
경이롭습니다.

이영철 화백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그리움, 사랑, 꿈, 희망은
꽃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헤미스님의 '추천의 글' 중에서

글, 그림 이영철 | 320쪽 | 15,000원

Here comes love
이영철 화가의 힐링편지

사랑이 온다

해조음 2014 신간

구입처 : 불교서적총판(주)운주사 02-3672-7181 www.unjusa.com | 인터넷서점 및 전국 대형서점